

高城郡 縣內面・梧垵面の 支石墓

— 第二卷 第十二號 通卷十七號 —

崔 淑 卿

지난 八月 天津浦湖水周邊의 先史遺蹟들을 둘러보다가 두개의 支石墓를 볼 수 있었다. 天津浦는 縣內 梧垵 面으로 둘러싸인 湖水로 本來 灣入되었던 바다가 海岸의 모래의 發達로 閉鎖된 瀉湖이다. 오랜 歲月 동안의 淡水의 流入과 雨期에 바다로의 溢出로 鹹度가 훨씬 얹어지긴 하였어도 바다고기며 조개類가 採取되고 있었다. 바다와 湖水를 낀 이 地域 一帶는 先史人의 重要な 生活根據地인 모양으로 일찌기 梧垵面 巨津里 ①에서 漆甕을 包含한 여러 遺物과 蓬坪里 ②에서 支石墓의 存在가 報告되었고 이번에도 草嶋里 茅亭里 等 天津浦沿岸의 낮은 丘陵들에 서 豐富한 無文土器遺蹟을 찾아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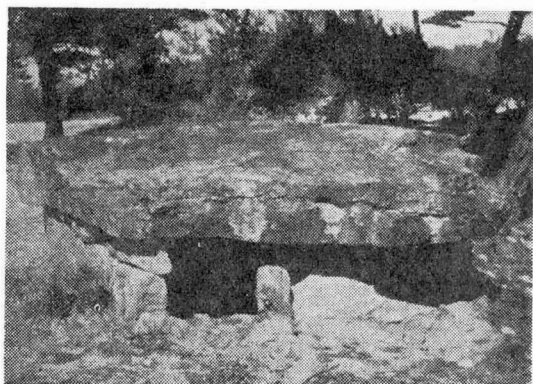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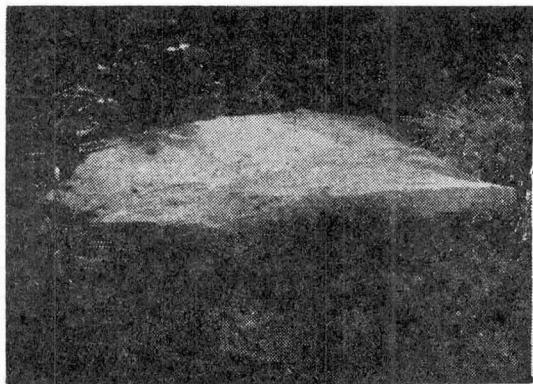


梧垵面 支石墓의 確實한 位置는 바다와 湖水를 絶斷하여 發達한 모래밭, 過去에 西洋宣教師別莊村이 있던 長坪里 松林사이에 있다. 調査當時 軍의 駐屯關係로 如意치 못하였던 것이나 後日에 어느 將校의 好意로

高眞과 實測圖를 얻게 되었다.

撐石은 一邊長 一·六m — 一·三五m의 不等五角形이며 두께는 四〇cm內外 支石高 四二cm의 北方式 支石墓이다.

둘째 支石墓는 거기서 湖水위의 다리를 건너 大統領別莊 넘어 길가 展望이 좋은 언덕위에 놓여있다. 長邊約四m의 不整形의 撐石이 現在는 땅위에 直接 놓여 있으나 本來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으로 竹亭里 韓中學生(權五錫)말에 의하면 過去에 말뚝들이 있었고 그 밑에서 여우가 새끼를 치고 살았다고 傳해지고 있다 한다. 아마 얼마前만 해도 이 近處는 人跡이 드문 외진 곳이었던 모양이며 이리로 길이 크게 나면서 現位置에 撐石만 옮겨 놓은 것인 듯싶다. 勿論 이들 支石은 이 周邊에 흩어져 있는 無文土器文化人의 所産일 것이다. 이 支石墓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길 건너 언덕에서



無文土器片과 함께 흩어진 石劍破片을 일출 수 있었는데 이는 兩者의 關係를 說明하여 준 것이라고 보아서 좋을 것이다.

註

① 澤俊一「溶范出土の二遺蹟」考古學 八十四

② 「韓國先史遺蹟遺物地名表」

貞元二十年銘

新羅銅鐘의 鐵索과 鐵壺

黃 壽 永

一九四八年秋 江原道 襄陽郡 西面 米川里 禪林寺址에서 木器斫는 사람들의 손으로 偶然히 發見되었다가 一九五一年初에 五台山 月精寺와 더불어 戰災로 破碎된 이 梵鐘은 解放後 最優의 埋藏物로서 戰亡文化財의 首位에 두어야 할 것이다. 筆者는 이 鐘과 적지않은 因緣이 있어 오직 一回만의 學的 調査를 擔當한 바 있었고 戰災後에도 殘片의 收拾과 出土 現場의 調査를 通하여 痛恨과 愛惜을 不禁한 바 있었다. 이 곳에 紹介하는 一點은 이 梵鐘에 隨伴된 遺品으로서 一은 鐘頭에 結索되어 있었고 他一은 分離된 채 發見되었으니 元來 鐘下 地中에 藏置되어 있었다고 推定되는 것이다. 前者는 火魔에도 融解되지 않고 原形을 남기고 있어 鐘片과 더불어 國立博物館에 運搬되었으며 後者는 銅鐘과 더불어 一同寺址에서 月精寺로 運搬되어 短期 縣架되었던 鐘口 直下에 埋藏되어 있어 多幸히 戰災를 免하였다고 傳聞하였으나 그 後 行方을 모르게 되었다. 以上 兩品은 모두 羅代의 製作으로 推定되는 바 梵鐘附屬의 高古한 資料로서 한층 貴重하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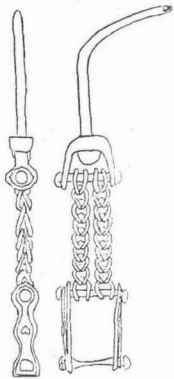
第二卷 第十二號 通卷十七號

二

鐵索은 銅鐘을 縣架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實測圖에서 보는 바와 같이 四部로 結構되었다. 最下部는 上下 鐵棒間에 各各 二枚의 鐵板片(外面片에는 透刻된 杏葉文이 있다)을 끼어서 圓釘으로 固定시켜 元形을 이루게 하였는데 이 곳에 龍鈕의 背部를 貫通시켜 鐘體를 直接 縣垂케 하였으며 그 위에는 各 九駒의 鐵環을 連結한 二條의 帶鎖가 길게 만들어져서 方框上部에서 連結되었다. 다음에 이 雙條連鎖의 上端을 鐵棒 一本으로 貫通시키고 그 兩端을 圓形 鐵環으로 固定하였으며 그 以上에는 一本의 긴 鐵棒을 이 圓形鐵環 頂部에서 連結시켰다. 다시 이 長棒尖端에는 一孔이 있어서 木部를 貫通시킨 후 鐵釘같은 것을 插入하여 安定케 하였던 듯 하다. 이와 같은 新羅梵鐘의 懸架를 위하여 만들어진 鐵索 ①의 出土는 初有의 일이라 하겠는데 年代는 銅鐘(貞元二十年 新羅 哀莊王五年 西紀八〇四年)과 同時로 推定되며 發見時에는 鐘體에 裝置되어 있었다. 全體에 赤褐銹가 덮여 있었으나 腐蝕度는 甚하지 않은 듯 하여서 出土後 그대로 再使用하였던 것이다. 全長은 六七cm로서 鐘全高 一m二二cm에 比하여 約一·一·八二로서 過長함이 注目되는 바 이것은 音響이나 懸架方法과도 關係될 것이다.

三

鐵壺 一個는 梵鐘出土에 앞서서 그 發見地點으로부터 五十m以上 떨어진 同一寺址 ②에서 發掘되었다고 한다. (銅鐘의 發見者인 宋在天氏부터 聽取) 그리하여 一九五〇年 一月上旬 筆者가 月精寺에서 처음으로 調査할 때에는 이미 鐘下에 埋藏되어 그 口緣部만이 地表에 露出되고 있었으므로 다시 發掘하여 그 全貌를 알 수 있었던 것이다. 全高五四cm의 두꺼운 圓底形器로서 圖面에서 보는 바와 같이 口緣은 擴大되어 外徑 六五cm 임에 對하여 壺口는 內狹되어서 外徑의 約半인 三五cm밖에



S=5:1 圖面1 (圖面1)